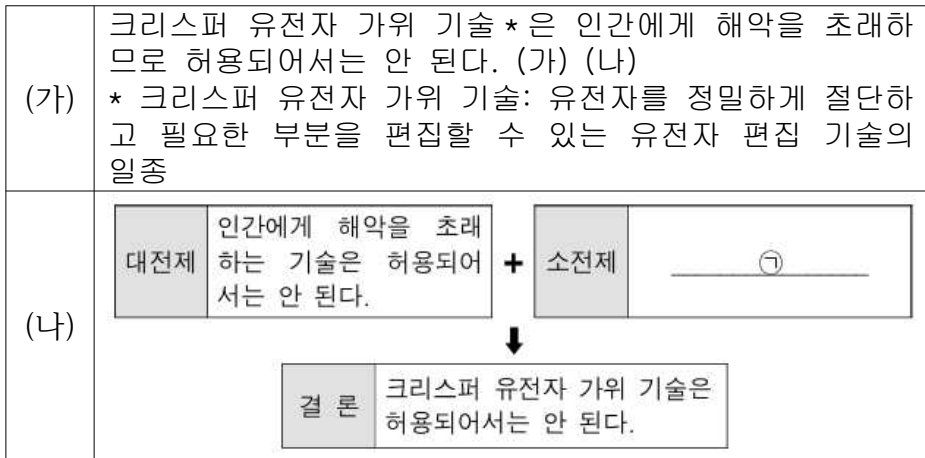


[25 (3월)교육청 12번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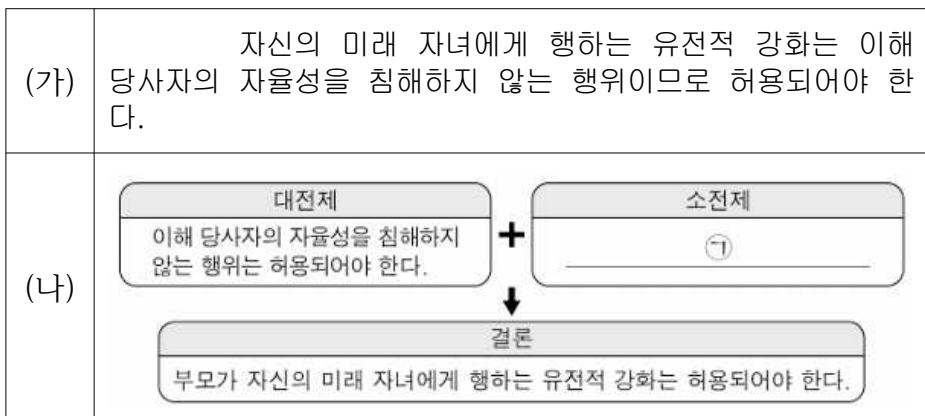
1. 12. ()의 주장을 (나) 그림으로 나타낼 때, ㉠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1)



- 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다.
- ②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.
- ③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.
- ④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부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.
- 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.

[26년(6월)평가원 18번]

2. 18. (가)의 주장을 (나) 그림으로 나타낼 때, ㉠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 2)



- 미래 자녀는 자신에게 행해진 유전적 강화에 동의할 것이다.
- ② 미래 자녀의 자율성은 유전적 강화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.
- ③ 유전적 강화는 미래 자녀의 자유 의지 행사를 제약하지 않는다.
- ④ 미래 자녀에게 유전적 강화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.
- ⑤ 유전적 강화를 받은 미래 자녀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

[25년(7월)교육청 5번]

3. .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)

갑: 최근 동물 복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동물 복제 기술을 활용하여 희귀 동물을 보존하고 멸종 동물을 복원함으로써 종(種)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동물 복제 기술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.

을: 동의합니다. 그와 더불어 반려동물 복제도 허용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25%를 넘어섬에 따라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
갑: 아닙니다.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에 대한 해결책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려동물 복제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. 반려동물 복제는 인기 있는 품종의 복제를 부추겨 종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을: 그렇지 않습니다.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반려동물 복제를 허용한다면, 종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반려인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.

- ① 동물 복제 기술의 활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?
 - ② 동물 복제 기술이 멸종 동물 복원과 희귀 동물 보존에 기여하는가?
 - ③ 반려인이 겪는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가?
 - ④ 반려인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반려동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?
 - ⑤ 동물 복제 기술에 관한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가?
- ☞ 수 있다. 하지만 원전에는 더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다. 나중에 찾아본

1)

정답 1

12. [출제의도]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윤리적 쟁점을 파악한다.

소전체 ㉠은 ‘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하는 기술이다.’이다. 이에 대해 ‘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다.’라는 주장은 ㉠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.

2)

1. 유전적 강화에 대한 입장 이해

정답 해설 : ㉠은 ‘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 강화는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이다.’이다. ㉣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미래 자녀에게 유전적 강화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㉠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서 적절하다.

정답 ㉣

[오답피하기]

㉠, ㉢, ㉤ ㉠에 대한 근거에 해당한다. ㉡ ㉠에 해당한다.

3)

5. [출제의도] 반려동물 복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정답 ㉣

같은 반려동물 복제가 종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을은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반려인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복제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. 갑과 을은 모두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.